



##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 강등 전망과 그에 따른 영향

이정환 선임연구원

### ■ 무디스는 10월 17일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함.

- 무디스는 최고 등급 Aaa인 프랑스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가운데 채무 구조가 최고 등급 국가들 중 가장 취약해졌으며, 경제성장 정체로 취약해진 채무 구조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아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예상된다고 밝힘.
- 특히, 유럽 재정위기와 은행권 금융위기가 연계되면서 프랑스의 유럽재정안정기구(EFSF) 분담금이 늘어남과 동시에 프랑스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가능성도 높아져 프랑스의 재정 구조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.
- 전문가들은 그리스가 선택적 부도를 맞게 되면 그리스 국채를 많이 보유한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전망함.

### ■ 전문가들은 그리스 국채에 대한 민간부채 상각이 확정되면 신용평가기관들이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'선택적 부도(selective default)'로 지정할 것으로 전망함.

- 선택적 부도란 일부 채무에 대해 정상적인 상환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'디폴트' 다음으로 최하 등급에 해당함.
-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은 최근 그리스 채권을 보유한 은행 등 민간 투자자들의 경우 60%가 넘는 손실 부담 가능성을 언급함.
  - 2011년 7월에는 그리스 국채 보유 민간 채권단의 손실 부담이 21%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, 10월 들어 동 손실 부담이 3배 가까이 증가함.

### ■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은 EFSF의 실질적 기금을 축소하게 되어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유럽 핵심국 은행권에 손실을 가져와 유럽 은행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음.

- EFSF의 기금 규모가 4,400억 유로라 하더라도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보증 규모가 축소되면 EFSF가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금 규모는 3,000억 유로 수준으로 축소됨.
  - EFSF는 Aaa 등급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, 이를 위해 Aaa 등급 국가(독일, 프랑스, 네덜란드, 오스트리아, 핀란드, 룩셈부르크)가 보증하는 자금만 사용할 수 있음.
  - 현재 독일(2,110억 유로)과 프랑스(1,580억 유로)가 보증하는 자금은 EFSF 보증 자금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함.
-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은 프랑스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프랑스 은행권과 독일, 네덜란드 등 유럽 핵심국 은행권에 손실을 가져와 이들의 신용등급도 강등시킬 수 있음.
  - 프랑스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은행은 프랑스의 4개 주요 은행(BNP 파리바스, 씨에테 제네랄, 크레딧 아그리콜, BPCE 그룹)으로 이들의 국채 보유 규모는 1,000억 유로를 상회함.<sup>1)</sup>
  - 이밖에 영국의 국립스코틀랜드 은행(151억 유로)과 HSBC 은행(112억 유로), 네덜란드의 ING 은행과 Rabo 은행(네덜란드 은행 합계, 200억 유로), 독일의 도이치방크(50억 유로) 등 유럽 핵심국 은행권(프랑스 제외)이 보유한 프랑스 국채는 500억 유로를 상회함.

(Wall Street Journal 10/19; Financial Times 10/17)

1) 4개 은행의 주변국(그리스, 아일랜드, 이탈리아, 포르투갈, 스페인) 국채 보유 규모는 1,000억 유로에 못 미침.